

적, 실험적 이론을 어떻게 적용시키고 응용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착안하여 술전 청력이 가지는 의의를 규명하고 이에 따라 수술 술식을 선택할 계획의 일부로서, 고실내 병변과 청력과의 관련성을 검토하였다.

연구대상은 1977년 1월 1일부터 1978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수술된 미경하에 고실성형수술을 시행한 만성중이염 189례를 대상으로 술전 청력장애와 술중 관찰한 고실내 병변과의 상관관계를 검토하였다. 관찰항목은 고실내 이소골의 병변을 중심으로 이소골에 특별한 병변없이 고막천공만 있는 군(I군), 이소골연쇄의 운동성 및 연속성에 이상이 없이 이소골 주위에만 병적 육아조직이 있는 군(II군), 이소골의 연속성은 정상이나 가동성에 이상이 있는 군(III군) 및 이소골이단군(IV군) 마다의 1) 이소골 병변, 고막천공의 크기 및 청력장애와 기도청력장애와의 관계, 2) 저음역 골도연장, 고음역 골도장애 및 Carhart's notch와 고실내 병변과의 관계 3) 고실내 육아조직의 발생부위 등과 기도청력과의 관계를 검토하여 그 성적을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

1) 만성중이염 총 189례의 평균 청력손실 역치는 44.6 dB였고 기도청력은 이소골 연쇄상태와 관계가 있으며 정상, 육아조직형성, 이소골 운동장애 및 이소골 연쇄의 이단 순서로 청력이 악화하였다.

2) 이소골과피괴의 평균 청력손실 역치는 49.1 dB이며 3개 이소골의 전결손례와 1~2개의 부분결손례에는 청력손실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나 이소골 부분과피괴 간에는 차이가 없었다.

3) 이소골연쇄에 병변이 없이 고막천공만이 있는 예의 기도청력은 약 45 dB 이내이며 천공이 커질수록 청력장애가 악화하는 경향이나 고실내 병변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4) 이소골에 병변이 없는 소천공의 청력손실은 30 dB 이내이며 30 dB를 넘는 것은 이소골 기타에 병변이 있었다.

5) 청력형은 수평형과 저음역장애형이 각각 57례(30.2%), 67례(35.4%)로 가장 많았으며 고음역장애형은 이소골의 운동장애가 있는 예에 많은 경향이 있었다.

6) 이소골의 가동성이 유지되면서 어떤 형태의 부하가 있을 때는 저음역골도의 연장이 있고 고음역골도의 악화는 중이염으로 인한 내이병변으로 온다고 추정한다.

7) 소위 Carhart's notch는 14례(7.4%)였으며 이소골연쇄의 강직력에서 발생한다고 생각된다.

8) 고실내 병리조직학적 염증형과 청력장애와는 관계가 없었다.

9) 고실내 육아조직의 발생부위 특히 전정창과 와우창상의 병변은 청력에 영향을 주었다.

10) 이소골 이단례에서 염증성 부산물이 전음기전을 대행하는 것을 인정할 수 있었다.

11) 이상의 소견은 술전 고실내 병변을 추정하는 데 한 지표가 된다.

8. 側頭骨纖維性異形成症

서울醫大

金宗善·禹勳永·白萬基

側頭骨에發生하는單骨纖維性異形成症은 극히 드문 耳科學의 疾患으로서 일반검 사성적이 정상이며 病巢에 無痛性骨組織增殖을 주 소견으로 출현한다.

著者 등은 本症에 의하여 外耳道閉鎖와 심한 閉鎖性 外耳道角化症을 동반하여 高度의 傳音性難聽을 일으킨 1예에 대하여 外耳道形成術을 시행하여 治驗하였기에 文獻考察과 함께 보고하는 바이다.

9. Nasal Packing 이 이관기능에 미치는 영향

왕레스 기념 침례회병원

손학순·백문찬·양초영·이준희·김종애

Nasal packing 이 이관 기능장애를 일으킨다는 것은 임상적으로 잘 알려진 사실이나 이에 대한 연구는 드문 것으로 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Nasal packing 을 요하는 비수술이 이비인후과 영역에서 가장 흔한 수술이기 때문에 Nasal packing 이 이관 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다는 것은 흥미있는 문제라고 생각된다.

저자는 비수술과 비출혈로 Anterior packing 을 시행한 40명의 환자(80 ears)와 비출혈로 posterior packing 을 시행한 13명의 환자(26 ears)로부터 Tympanometry 을 측정하여 이관 기능장애를 연구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Anterior packing 을 시행한 환자의 80 ears 중 30 ears(37%)에서 중이내압의 감소를 보였으며 그 중 16 ears(20%)에서 100mmH₂O 이상의 중이내 음압을 보였다.

2) Posterior packing 을 시행한 환자의 26 ears 중

15 ears(50.7%)에서 증이내압의 감소를 보였으며 그중 11ears(42.3%)에서 100 mmH₂O 이상의 증이내 음압을 보였다.

3) Posterior packing 이 Anterior packing 보다 더 높은 빈도의 이관 기능장애를 보였다.

4) Nasal packing 으로 인한 이관 기능장애는 packing 제거 후 2일에서 9일내에 정상으로 회복됨을 볼 수 있었다.

10. 食道異物의 合併症에 關한 臨床的觀察

慶北醫大

李養璿·趙暎采

食道異物의 合併症은 稀少하나, 간혹 銳利한 骨片, 銳利한 金屬性異物 및 異物의 長期滯留에 依해 食道損傷을 일으키는 異物自體에 依한 境遇, 食道疾患 患者의 診斷, 治療 目的으로 食道鏡檢査 때의 조그마한 不注意에 依한 境遇 및 食道의 位置關係 等의 原因으로 合併症을 일으키어 자칫 잘못하면 致命的인 狀態까지 惹起시키는 수도 있다.

그러므로 여기에 대한 早期診斷과 迅速한 治療을 가하지 않으면 높은 死亡率과 病變을 招來하기도 한다.

이러한 意味에서 著者는 食道異物自體에 依한 合併症 및 食道鏡檢査時의 不注意에 依한 合併症 27例를 經驗하였기에 文獻的考察과 함께 報告하는 바이다.

11. 식도 및 기도이물의 통계적 고찰(제 5보)

연세의대

김기령·홍원표·이춘근
이정권·박기현·김상기

식도 및 기도이물은 응급을 요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비인후과 영역에서 중요한 질환으로 취급되어 왔고 이에 관하여 많은 문헌을 찾아볼 수 있다.

한가지 흥미로운 것은 문명의 발달과 생활양식의 변화에 따라서 오늘날의 식도 및 기도 이물의 종류와 발생빈도 등에서도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다.

과거에 본 교실에서는 이러한 이물의 실태와 추이를 관찰하기 위해 이미 4차에 걸친 식도 및 기도이물 통계를 보고한 바 있거니와 이제 다시 제 5보로서 1973년 1월부터 1977년 12월까지 5년간에 걸쳐서 체험한 186례의 이물을 대상으로 통계적 관찰을 실시하여 다

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이물의 빈도는 식도에서는 주화가 가장 많고 금속첨, Disc, 골편 등의 순이었으며 기도에서는 땅콩과 곡물이 많았다.

2) 성별빈도는 식도에서는 남자가 56.4%, 여자가 43.6%로써 남녀의 차가 크지 않았으나 기도에서는 남자가 71.7%, 여자가 28.3%로 남자에서 많았다.

3) 연령별 빈도는 식도 및 기도에서 다같이 10세 이하의 연령층에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식도이물에 있어서 5세 이하 연령층에서는 주화 등을 우발적으로 오연함으로써 인한 것이지만 30대나 60대에서는 식도협착이나 치아손실로 인한 저작 불충분 때문에 육류 또는 식과가 저류되는 점이 흥미롭다.

4) 부위별 빈도는 식도에서는 제 1협착부가 제일 많았으며 기도에서는 우측 기관지가 많았으나 좌측 기관지와는 차이가 적었다.

5) 이물의 잔류기간은 과반수 이상이 24시간 이내였다.

6) 주화의 종류로서는 10원 주화가 67.0%로 제일 많았으나 100원 주화의 발생빈도가 점차 증가함을 보여 주었다.

12. Suspension Laryngoscope 下에 후두미세수술을 시행한 53명에 대한 임상통계학적 고찰

한양의대

전하동·최인환·추광철·김선곤

Scalco, Simpson & Tabb가 lynch suspension laryngoscope 를 이용하여 후두의 葦腫 및 병변의 치료목적으로 최초로 microsurgery 에 성공한 후 Kleinsasser 의 후두 microsurgery 에 대한 신기술의 보고 및 체계화는 근래 20년 동안 발전된 microlaryngeal surgery 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 최근 간접후두경하의 조작보다 이의 사용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에 저자들은 1972년 5월부터 1979년 4월까지 한양대학병원 이비인후과에서 suspension laryngoscope 를 시행한 53명(75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지견을 얻었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1) 성별로는 남녀 1.3 : 1로 남자가 많았다.

2) 연령분포는 30대 14명(26.4%), 20대 10명(18.7%), 50대 9명(17%), 60대 7명(13.2%), 10세 미만 6명(11.3%)의 순이고 최저 2세, 최고 74세였다.

3) 증상별로는 애성 48명(90.6%), 호흡곤란 16명

1) The average hearing threshold of chronic otitis media was 44.6 dB and hearing threshold was closely related to the condition of ossicular chain. Hearing threshold became greater in order of normal ossicular chain, ankylosis and interruption.

2) The average hearing threshold of ossicular interrupted group was 49.1 dB and it was greater in the cases of total destruction than that of partial destruction.

3) The hearing loss in the cases of normal ossicular chain with only tympanic membrane perforation was within 45 dB and this level was presumed to represent normal ossicular function. The degree of hearing loss was in proportion to the size of ear drum perforation and when over 45 dB, other middle ear pathology was suggested.

4) In the cases of small ear drum perforation with normal ossicular function, the hearing threshold was within 30 dB.

5) In the type of audiogram, flat type was 30.2% and ascending type 35.4%. Descending type was more frequent in the cases of normal ossicular mobility with granulation tissue around the ossicle and flat type was observed frequently in the cases of ossicular ankylosis.

6) Carhart's notch was seen in 14 cases (7.4%) and observed mainly in ossicular ankylosis.

7) There was no relation between hearing threshold and histopathological type of granulation tissue in chronic otitis media. However the degree of hearing impairment was related to the location of granulation tissue in the middle ear cavity.

8) Authors recognized the granulation tissue compensated the function of interrupted ossicular chain.

8) Fibrous Dysplasia of the Temporal Bone

Chong S. Kim, M.D., Woo H. Young, M.D., and Man Kee Paik, M.D.

Department of Otolaryngology, Seoul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Fibrous dysplasia of the temporal bone is an extremely rare condition in otological field with a total of 11 cases in the English literature so far.

Authors experienced a case in 18 year old boy with complete obliteration of the external auditory canal and long standing keratosis obturan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discuss principles and methods of canalplasty and meatoplasty with literature review and presentation of authors case.

9) Effects of Nasal Packing on the Eustachian Tube Function

Huk S. Son, M.D., Mun C. Back, M.D., Cho Y. Yang, M.D., Joon H. Lee, M.D., Jong Ae Kim, M.D.

Department of Otolaryngology Wallace Memorial Baptist Hospital, Pusan.

It is clinically well-known observation that Nasal packing is associated with the eustachian tube dysfunction, and this study seldom appeared in the literature.

In our country, Nasal Surgery requiring Nasal packing is still the most frequent operation in the field of otorhinolaryngology and it is our interest to study this effects of Nasal packing on the eustachian tube

function.

Using tympanometry, we experienced eustachian tube dysfunction in 40 patients (80 ears) with anterior packing due to Nasal Surgery and epistaxis and in 13 patients (26 ears) with anterior packing and posterior packing due to epistaxis.

The results were as follows;

1) Thirty of the 80 ears (37%) in the patients with anterior packing revealed reduction in middle ear pressure, of which 16 ears (20%) demonstrated negative middle ear pressure of greater than 100mm H₂O.

2) Fifteen of the 26 ears (50.7%) in the patients with posterior packing revealed reduction in middle ear pressure, of which 11 ears (42.3%) demonstrated negative middle ear pressure of greater than 100mm H₂O.

3) Posterior packing is associated with a greater incidence of eustachian tube dysfunction than anterior packing.

4) The eustachian tube dysfunction associated with Nasal packing is temporary and this function is returned to normal within 2 to 9 days after removal of the packing.

10) Clinical Observation of Complications of Foreign Bodies in the Esophagus

Yang S. Lee, M.D., Young C. Cho, M.D.

*Department of Otolaryngology, School of Medicine,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Daegu, Korea*

Though complications of foreign bodies in the esophagus are rare, they are sometimes fatal due to injuries to the esophageal wall by sharp pieces of bone, metals, long-term lodgement of foreign bodies in the esophagus or a little inadve-

rtence during diagnostic or therapeutic esophagoscopy on patients with esophageal diseases. Therefore, failure to early diagnose and adequately treat the complications will lead to high morbidity and mortality.

The authors have experienced 27 cases of complications of foreign bodies in the esophagus caused by foreign bodies themselves or inadvertence during esophagoscopy. So we report them with literature review.

11) A Statistical Survey of Foreign Bodies in Air and Food Passage (Report V)

**Gill R. Kim, M.D., Won P. Hong, M.D.,
Choon K. Lee, M.D., Jeung G. Lee, M.D.,
Kee H. Park, M.D., Sang K. Kim, M.D.**

*Department of Otolaryngology, Yonsei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Foreign bodies of the esophagus and tracheobronchus are likely to occur whenever a child places an inedible object in the mouth and are common in the older age group particularly in edentulous individuals or preexisting disease.

Our department had already reported the statistical survey at first in 1954, successively in 1962, 1963 and 1968, respectively according to the age, sex, variety of foreign bodies, location and duration of the lodgement.

Now, we have experienced the new 186 cases during the consecutive 5 year period from January 1973 to December 1977 and reported as a 5th report comparing with previous report.

The results were as follows.

1. In the incidence of foreign bodies, coins